朝鮮日報 二十八日夕刊

時評

露領同胞의安危

日露交涉이 成立된後官傳 禁止條項에 朝鮮人의結社및 에關한運動의禁止를、主案으로하엿슴으로 露領에在住하는 우리同胞들은 非常히不安을感하는同時에 오래동안 懸題가되여잇든 沿海州自治 問題를實現하가爲하야 各方面으로活動中이라함은 內地에잇는吾人의興味를끌든바인데 이제海參威情報에據하건대 同政廳에서苛酷한朝鮮人取締令을發布하야 日本人側의諒解를求하게되엿다

×

그런데그取締令은三項인데 그要點은領事館에暴行을加하는者의게酷刑을課하고그暴行을行한사람이團體에關係가잇는때에는 同團體의責任者가全責任을負한다하엿스며朝鮮人의組織한 團體나結社는如何한者를不問하고自由行動을禁止한다하엿다 在露同胞의安危問題를늘念頭에두고잇는吾人에게 無限한不安의念을이르킨다 이取締令의 適用되는寬酷의度는吾人의무를바이아니어니와 何如間在露同胞의活動이表面上으로 非常히辦制와壓迫을受할것은無疑의事實일것이다 內外를通하야 强力의咀呪를밧고잇는우리의運命을엇지하랴! 아아吾人은眞摯한覺悟가잇슬뿐이다

不安!反動!

×

治安維持法의實施期가切迫한外닭인지 우리社會는무듯不安과反動의波動이 渦回하고잇다 모든會合에 一律的으로禁壓의鐵鎚를下하고 反動의威力을자랑하는 當局者! 集會와言論와自由를失한民衆! 憤激과抑鬱을 胸臆에包藏하고不安을늣기고잇는 民衆!여긔階級支配의特質이잇다 말하면 征服者와被征服者에對한殘暴性은 이에그絕頂에達하엿다

×

오늘날當局者가 이미治安維持法이란 新武器의使用에對하야 萬般에 遺漏가업는準備를하게되는時機에잇서 엇지우리는거의 勿論우리도 覺悟가업슬바이라 無서운反動의暴風이 準備와對應策이잇서야할것이다 密氣壓이低廻하고잇다!우리는確乎한信念으로서 이反動期에臨하자

民主系의힌元帥投票

이것이大統領當選의主因

(케른二十七日發) 今回大統領選擧에서『힌덴부르히』元帥는各地에서豫想外의投票를保하얏는데聯合諸國에게占領된『라인』地方에서의得票는特히驚愕한바이라『힌』元帥는『뭰센돌푸』『망하임』及『조린겐』에서는『맑스』氏와伯仲이엿스나『코부린츠』市에서는『맑스』氏를遙히凌駕하얏섯다今回의『힌』元帥當選은民主系의選擧民이國權黨에對하야投票한所以이더라

힌元帥統領當選과

倫敦言論界의警愕

(倫敦二十七日發)『힌덴부르히』元帥當選의報가一次傳하게되매各新聞紙는印刷中의輪轉機를中止하고此를揭載하엿스나社說을揭載할만한時間은업섯다然而어느新聞이던지『힌덴부르히』元帥의當選을意外로생각하는듯하야『힌』元帥當選電報에는擧皆意外의當選이라는文字를부치어揭載하엿더라

對獨融和는困難

힌元帥勝利와佛紙의敵視

(巴里二十七日發)『힌덴부르히』元帥가獨逸大統領에當選한事는佛國人士間에深甚한衝動을惹起하야『마탄』新聞은同元帥의勝利는婦人의投票에依한것이다說하야今에佛國에서何人이國務總理가되던지獨逸에對하야 融和的政策을取하기는困難하다斷言하얏고『유날』新聞은獨逸大統領選擧의結果는平和維持에關한獨逸人의選擇한것이價値가업슴을示한것이다指摘하얏더라

歐洲協調의危機?

힌元帥大統領當選과

米國新聞紙의論調

(紐育二十七日發)『힌덴부르히』元帥가獨逸大統領에當選한것에對하야當地諸新聞은盛히論議中인바彼等의大部分은『힌덴부르히』元帥의大統領就任은佛獨關係에葛藤을惹起할지며從하야는歐洲協調도沮害되지나아니할가虞慮하는中이더라

等은『힌』元帥의得票가多數에達한것이確實하다고豫想하던中이더니當選되엿더라

國務省의驚愕

(華盛頓二十七日發) 米國政府側에서는『힌덴부르히』元帥의獨逸大統領으로當選한報를接하고多少驚愕하는中이다이번獨逸大統領選擧에深甚한注意를하던米人이더라

英樞密院議長

『발포아』伯任命

(倫敦二十八日發) 英國皇帝『조지』五世陛下는樞密院會議에서『발포아』伯을故『카손』卿의後任으로樞密院議長에任命할旨를發表할터이며尙且一方『솔스베리』公은保守黨上院內總務로『카손』卿의後를襲하게하리라더라

獨內閣은留任意嚮

(伯林二十七日發) 獨逸新大統領『힌덴부르히』元帥의與黨인國權黨의某役員은『힌덴부르히』元帥가大統領에當選되얏슴에不拘하고現在의『루터』內閣으로하야 금그대로留任하기를許할意嚮인것을發表하얏더라

初有의苛酷한排日案

코롬비아獨立黨議員의提案

◇實施되면東洋人엔大打擊

(華盛頓二十五日發)『푸리』議員『셈유도』少佐는近近外人排斥案을提出할터인바同案은加奈陀에서未曾有의苛酷한것으로此가만일實施되면東洋人은土地의所有及貸借權을全然剝奪되게되얏다『셈유도』少佐는會前부터亞細亞人排斥에奮鬪하야오던人으로加奈陀議會의『노루』氏等과共히氣脈을通하얏섯다加奈陀對日本의銀行契約은日本人에對한財產上의特權을充分히認定하나此는單히形式上에不過하고加州의外人土地法과如한排日法律을制定할權利를加奈陀에與하는旨를規定한一項이잇는지라加奈陀로

駐奉辦公處設置

露中正式會議開催準備

(奉天電) 露中正式會議가近近北京에開催됨에當하야奉天에露中會議駐奉辦公處를故孫督軍의邸宅孫家花園에設置하기로되엿다同所의內容은總務、會務、文書、飜譯、會計、庶務、記錄의七部로分하고會務部를更히路政、航政、通商、國界、貨幣의五課로分하야各課에課長을置하며其外에秘書課를置하고中、英、露의各秘書를置하게되엿더라

督辦公署

保定으로移轉

(奉天電) 李景林氏는同時에保定에督辦公署를移轉할터인데目下天津에잇는省長代理로되야잇는不利한天派를爲하야서는奉天派郭松齡氏를推薦하게되야이미段執政에通達하엿다라

春秋二回演習

三省會議서決定

(奉天電) 張作霖氏는三省會議에서春秋二回大演習을行하기로決定하엿든바旬頃錦州方面에서擧行하리라더라

伊機飛行繼續

(바다도二十七日發) 東京에向하야飛行途中에잇는伊國飛行家『도피넷도』中佐는東京에向하야飛行을繼續하엿더라

大日本普選史

近近編纂着手

(東京電) 普通選擧法案通過를紀念하기爲하야五月一日에上野精養軒에서洲野廣中島田三郎等故人에게報告祭를擧行하야大祝賀會를開催하는同時에大日本普選史를編纂하기로되얏는데이大法典은明治二十年以來二十幾年의血과淚의結晶인바憲政會는이를비롯하야普選을實施하기爲하야明確하게하기爲하야特히系統的으로講査하게되

罷業嚴重取締要求

日公使對中政府抗議

(北京二十七日發) 靑島의紡績罷業은漸次擴大하야形勢가險惡하야진에鑑하야日本公使館은一兩日中外交部에對하야通牒을發하야該事件에對한中國政府의注意를喚起함과共히此種의罷業은中國에잇는日本人의企業에多大한損害를與할事實을指摘하야中國官憲의嚴重한取締를要求할터이더라

取締하겟다回答

(東京電) 堀內靑島日本總領事는政府의訓令에基因하야二十五日中國官憲에게罷業鎭壓方法과罷業職工煽動者檢擧方法을交涉한結果此에對하야山東士琦及海軍司令官으로부터는이미靑島警察署에命令하야煽動者及首謀者를檢擧하라하엿다는回答이잇섯다하며一方日本側에서는警戒中이오今後도取締하로二十七日外務省에公電이잇섯다

遭難船救助次

英艦의現場廻航

(紐育二十七日發) 英國軍艦『웍스테리아』號는『바—파다』로부터加奈陀『하리뮤크스』에到着

駐露日使館員

近近任命發表

(東京電) 露國莫斯科에駐在할日本大使館員은正式任命이잇는대로田中外相은此를確定的이라하야正式任命을準備中인바는現佛國大使館參事官以下의任命을準備中인바氏、一等書記官에는酒匂等이任命될지오尙且駐露武官도近近決定될터이더라

軍制改革과

常備兵의減少數

(東京電) 軍制改革에依한四個師團減少에依하야減收는將校同相當官百

日貨排斥의前提

奉天의國產獎勵

(奉天電) 王奉天省長은回國產獎勵의意味로各縣知事에게產業獎勵國製品을使用하고外國品을使用치말라嚴命한貌樣인바此는明確히日貨排斥에서나옴이라더라

教費負擔增額

明年中實現?

普選公布와

選擧違反者特赦

格國은畢竟解散

勞總內紛報告會

結局勅選에落着

田中男의議席問題

臺灣交通總長

生野氏任命

東拓新債募集

土地經營者에累進課稅案과

狹軌線接續費

廢止問題

官立女子專門校

新設하기로內定

三角命令航路

設置具體化

精神病者

制定의必要

震災切手發賣禁

四月末日限하야

郵便葉書規則

改正發表

在外日人調查

露西亞가는길에

西伯利亞第一信(六)

金俊淵

車中生活의樂

集團生活의鍛鍊

勞働의分配

近海航路運賃

收入上打擊原因

航路設定

定期航路

理想으로는

三師團이必要

朝鮮增師問題와

開通區域

朝鮮私設鐵道

一哩平均運賃

洋畫作品展覽

熊本과進合入賞者

八面鋒

鐵筆寫眞 (投稿歡迎)

「메-데-」에 關한 集會絕對禁止
우리한경찰의 고압수단

전조선 민중운동자대회(全朝鮮民衆運動者大會)가 금지를 당한후로 당분간 사상단톄의 집회는 엇더한 것을 물론하고 경찰당국에서 절대금지 하기로 하엿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오월일일 「메-데-」에 대한 집회도 역시 절대 금지하기로 하는 동시에 그리유는 민중운동자대회 때의 원동의 전긔사건이후 여러주의자들이 극히 흥분되엇슴으로 보안법 위반과 치안방해의 폐단이 생긴다하야 그와 가티 무리한 고압으로 절대금지를 한다더라

『不穩으로 認定』 당분간 절대불허
馬野警察部長談

이에 대하야 경긔도 마야경찰부장(馬野警察部長)은 말하되 전번 민중운동자대회 금지 이후로 그 관계자들이 극히 흥분되엇슴으로 그들이 모히는 곳에는 반듯이 불온한 언사와 문구로 치안방해와 보안법 위반의 폐해가 생길 것은 명약관화의 사실임으로 그것을 확실히 인정하면서 그 집회를 허락할 수는 도저히 업습니다 「어린이 메-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어린이 메-데-」 그것이 불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면에 잇는 사람들이 모다 주의자들임으로 역시 다소의 폐가 업지 안흘 것임으로 부득이 금지하라 함니다 하여간 주의자들이 극도의 흥분중에 잇는 지금임으로 당분간 그들의 집회를 금지하라 함니다 하더라

『氣막히는 警察!』
『어린이 날』도 禁止
배면의 주의자가 잇다고 무리한 고압으로 또 금지

『메-데-』에 대한 사상단톄의 집회는 경찰당국에서 무리히 금지한다 함은 별항과 갓거니와 아모리 무리한 조선경찰로도 참아 행할 수 업슬만한 고압뎍수단으로 주의에 한등의 관계가 업는 어린이 데-이-』에 대한 긔념식과 행렬까지도 금지한다는 그 리유는 『배면에 주의자들이 붉은빗을 띄우고 잇슴으로 역시 치안방해의 폐단이 생긴다』 하야 그와 가티 무리한 금지를 한다더라

로 더긔행렬(大旗行列)을 할 예뎡이요 특별히 중앙유치원 사범과 학생 부도 여긔유원 참가할 터인바 그날 모히는 소년소녀들의 행렬하며 부르려는 노래는 다음과 갓다

一、깃부고나 오늘날 五月一日은 우리들 어린이의 깃분날일세 복된목숨길이 품고 뛰여노는날 오날이 어린이의날 만세-만세를 가치 부르며 압흐로 압흐로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깃분맘으로 로노래를 부르며 가세

二、깃부고나 오늘날 五月一日은 반도정긔 타고난 우리 어린이 길이 길이 버더날 새목숨품고 즐겁게 뛰여노는날

少年運動 宣傳計畫
만여개의 칠십만장 선전지로

조선의 새명절인 어린이날-즉 오월일일을 위하야 경향각처의 소년소녀단톄에서는 여러날 전부터 밤을새여 준비한다 함은 이미 본보에 보도한 바이어니와 당일의 배포할 사십만장의

선전지 가 벌서 다다러나 고 다시 삼십만장의 선전지를 인쇄하엿다 그러고 당국으로부터 선전행렬이 허가되야 각 소년소녀단톄에서는 만여개의 선전긔를 만들어 그날은 련합하야 시중으로

(곡됴는 야구가(野球歌)의 장엄하고 씩씩한 야구수들아」와 갓다

行列參加團體

天道敎少年會 朝鮮少年軍
中央基督少年部 明進少年會
佛敎少年會 半島少年會
現代少年俱樂部 朝鮮少年會
愛進少年會 새 벗 회
天靑年會少年部 愛友少年會

깃븜사

새로 참가하실이는 이십구일내로 경운동 소년운동협회 사무실로 신입함이 조켓다더라

陰謀事件擴大
黑龍會頭內田良平收監
흑막인 대의사도 소환될듯

이십칠일 동경 경시텽(警視廳)에서 취됴를 바든 흑룡회(黑龍會)회두 내뎐량평(內田良平)씨는 디방재판소 검사국으로 보내어 룡천검사(瀧川檢事)에게 취됴를 바든 후 밤아홉시경에 다시경시텽으로 넘기어 류치장에 인치하엿다는데 탐문한 바에 의지하면 일량일중에 총본예심판사(塚本豫審判事)로부터 지뎐홍수(池田弘壽) 좌등경삼(佐藤慶三) 미도응일(尾道應一) 등 삼명을 가등수상(加藤首相) 암살음모 사건으로 령장을 발하야 시곡형무소(市谷刑務所)에 수용되리라는데 이사건은 형사부에서 매우 확실한 증거를 잡은 듯함으로 혹은 불원간 흑막인 모정당의 대의사(代議士) 등의 소환을 보게 될 듯 하다더라

主犯은 尾道
권총으로 암살계획

흑룡회(黑龍會)의 머두령인 내뎐량평(內田良平)을 비롯하야 지뎐(池田) 좌등(佐藤) 외 한명의 간부가 일량일중에 수감될 모양이라는데 그 주범인 미도(尾道)가 수상암살의 목뎍으로 휴대하엿든 권총은 지뎐으로부터 빌려 가진 것이 판명되엇다 지뎐은 미도의 암살계획을 짐작하엿는지는 의문이나 좌등씨가 그러한 계획을 무미엇슴으로 내뎐회두도

競技運動
蹴球大會의 初日壯觀
開場式과 經過
京城軍은 棄權不參

蹴球大會의 初日인 二十八日午前九時부터 市內貞洞培材球場에서 行하게되얏는데 參加한 二十二團體二百八十六名은 初日午前七時半에 壽松洞普成高普에 모히어 同

第六回蹴球 優勝은 어데로!
=五回까지의 經過=

回	(小)	(中)	(專)	(靑)
一回		紛擾로中止		
二回		徽文		戊午
三回		徽文		佛敎
四回	光成	培材		佛敎
五回	光成	培材		健康
六回	?	?	?	?

八時에 培材樂隊를 先頭로 하야 少年團의 攻玉 崇德 光成과 中學 專門 及 靑年의 順序로 壯嚴한 入場式이 잇슨 後 이어서 大會會長 尹致昊氏의 嚴重한 式辭와 優勝旗 返還式을 마치엇다 그러고 同九時에 會長의 開場式이 잇슨 後 第一回 豫選競技는 抽籤대로 小學團부터 進行되얏는데 經過는 다음과 갓다

小學團豫選
攻玉이 3 崇德

徐丙義氏 『레프리』 張權 朴鍾憲 氏 『라인스멘』 攻玉先蹴으로

◇성리를다투는용사 (개막된축구대회)

警官殺害한 李泰華의 첫公判
취중의 일이라고 피고변명
사형이 상당타고 검사론고

지난 이월구일에 평양부대안선교리에 사는 중국사람 우서평(于緖平)의 집에 침입하얏다가 잡으러간 평양경찰서 웅곡(熊谷)순사부장을 찔러 죽이고 탕천(湯淺)순사에게 중상(重傷)을 식힌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 평안남도 중화(中和) 태생 리태화(李泰華)(三一)에 대한 데일회 공판은 이십칠일 오전열두시 삼십분부터 평양디방법원 뎨일호법뎡에서 재판장 이등판사(伊藤判事) 송영(松永) 계(桂) 량배석 률산검사(栗山檢事) 립회로 개뎡(開廷)되얏는데

이 사건은 당시 세상을 놀래인 만치 공판 방텽자가 일은 아츰부터 모여들어 개뎡과 동시에 박뎡석은 만원이 되고 말엇다 피고 리태화는 엄중한 경계속에 입뎡하얏는데 그 잔약한 모양은 보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업슬만하

시 술에 취하야 아지못하고 행한것이라고 검사뎡에서 진술한 사실을 권연히 부인하매 재판장은 『어데서 얼마나 먹엇는가』 하고 무르니 『곳도 모르고 량(量)도 모르겟는데 닷새동안

무의식중 에 잇섯다』 고 대답한 후 약간 심문이 잇고 률산(栗山)검사의 론고에 드러가서 『본사건이 세상을 놀래게 하엿

『一하엿다고

警視廳大活動
음모사건으로 련야대활동중

경시텽(警視廳) 형사과에서는 이십칠일 아츰부터 형사들이 사방에 경계선을 느리고 대활동중이라는데 이십칠일 정오부터는 흑

드되어 그 외 중에 걸려들게 되것이라는데 미도가 그 계획으로 수취한 금액은 귀족원 교우구락부(交友俱樂部)의 모 정당 간부로부터 지출된 것인듯 하다는바 그 근원을 알기는 곤난하나 미도의 살인예비죄와 내뎐 등 네명의 교사죄로 수감될 모양이라더라 (동경뎐보)

政黨動搖
뎐중대장외한명 이번에 탈당햇다

정우회(政友會) 궁성지부(宮城支部)의 뎐중대장(田中大將)과 초애승위(草刈勝衞) 등은 이번에 탈당신청서를 제출하엿다더라 (선대뎐보)

룡회(黑龍會) 내뎐량평(內田良平)외 두명을 검속하고 방금 엄중 취조중이라는바 그 내용은 이 미발각된 가등수상(加藤首相) 암살사건에 관한 사건인듯 하다더라 (동경뎐보)

사형구형

승은 피고가 법뎡에서 진술한바와 갓거니와 그 범행(犯行)이 최초부터 죽일생각이 잇는 것은 대포되기 전에 명함뒤에 쓴 『목숨을 내기하야 써라도 목뎍을 달하겟다』 는 자구(字句)를 보드래도 말로 살할 것이라 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말로 상해치사(傷害致死)로만 볼 수 업다고 약 삼십분 동안 준렬한 론고를 한 후에 사형(死刑)이 상당하다고

사형구형 (求刑)을 하얏는데 피고 리태화는 자긔명함뒤에 쓴 『죽기를 내기한다』는 것은 취중에 아지못한 까닭이라고 변명한 후 변호사 변론에 드러가서 관선(官選)변호사 오종섭(吳宗燮)씨는 피고의 살의(殺意)가 잇고 업는 것은 흉행에 쓴 소도(小刀)를 보와 알 것이라 변론하야 피고에게 유리한 말로 극형에 처하는 것은 안 된 일이니 유긔(有期)나 혹은 무긔(無期)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오후 한시 삼십분 경에 폐뎡하얏는데 판결언도는 오는 오월사일 오전구시반이라더라 (평양)

『學之光』 押收
당국의 긔휘로

일본동경(東京) 조선류학생학우회(朝鮮留學生學友會) 긔관잡지 학지광(學之光) 뎨이십오호는 당국의 긔휘에 뎌촉되야 압수를 당하엿다고

病中에 잇는 愛子를 慘殺!
홍역귀신을 쫏처낸다고 아이머리에 솟을 씌워서
迷信이 産出한 一悲劇

경상북도 선산군 옥성면대봉동(慶北善山郡 玉城面鳳洞) 일

三百餘戶住民에게 突然히 撤去命令
인천송림리 매립공사와 일본인 디주의 횡포

無道한 東拓農監
비난이 자자하다

慶北山火의 原因
미신 뎍방화로

高原郡 郡民大會開催
각단톄도참가

各國紙幣를 僞造
대규모로 비밀히 위조

勞總主催의 講演도 禁止
강연은 금지되고 표어는 발표할터

在東京朝鮮勞總 勞働示威에 參加
대대뎍으로

인도정부

疑問의 自殺
그원인은 미상

處女를 誘引逃走

鍾路署又復 二名檢束

漢江邊에 腐屍

羅州에 强盜

無錢取食하고

無産靑年創立

良民毆打巡査

義妹에게 金錢强請

鳳山郡廳의 無理한 命令

面長辭表提出

개도적놈